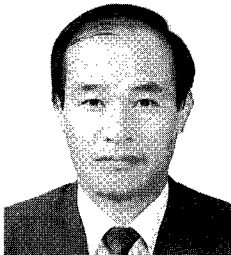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 코너



오 경 록  
남덕 싸니테크

#### □ 야외에서 분리한 IBD(감보로) 바이러스 항원구조

인도네시아 보고르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보로병은 야외 바이러스와 백신 바이러스 간에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 감보로병이 유행할 때 5개 지역에서 10개의 감보로병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중화시험을 해본 결과 5개의 새로운 형을 발견하였다.

이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의 항원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긴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최근의 감보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백신에 사용하는 감보로병 바이러스가 야외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각 지역에 적절한 감보로 백신을 만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감보로병 바이러스에 대해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PI. 94. 9)

#### □ 살모넬라 생독백신

독일에서 가금용 살모넬라균 생균백신을 개발하였다. 이 백신은 능동면역을 형성하여 계란이나 장기 내에서 살모넬라균의 활동을 예방한다고 한다.

음수접종으로 사용하며 한 육계회사에서는 연간 1억 4,000만수의 육계에 접종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PI. 94. 9)

#### □ 사료첨가제와 살모넬라균

미국의 메인대학교에서는 5가지 사료첨가제(유산균, 락토스, 유기산, 복합 생균제, 난분)가 살모넬라 엔터리티디스(Se)의 장내 정착과 장기조직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5가지 사료첨가제가 혼합된 사료를 급이하면서 1일령과 4일령에 살모넬라균을 소낭에 투여하여(약 10<sup>4</sup>CFU) 인공감염시켰다.

대조구와 비교할 때 1일령과 4일령에 감염한 시험구 모두에서

장내정착과 장기조직에 침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6주간의 시험기간중에 살모넬라균의 장내정착과 장기조직에 감염율은 계속 떨어지고 대조구보다 첨가구에서 더욱 빨리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하강율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다른 첨가제보다 5% 난분 첨가구에서 더욱 확실한 유의차가 보였다.

그러나 시험에 사용된 첨가제 모두가 Se의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없지만 부화장이나 농장에서 청소, 소독, 구서 작업 등 종합적인 살모넬라균의 방역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PI. 94. 9)

#### □ 신장에서의 비타민 D<sub>3</sub> 대사

비타민 D<sub>3</sub>와 비타민 C의 기능적 역할은 신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비타민 C가 비타민 D<sub>3</sub>를 이용성의 형태인 1,25(OH)<sub>2</sub>D<sub>3</sub>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신장에서 전환된 D<sub>3</sub> 대사물질은 소화장에서 칼슘흡수, 칼슘과 단백질의 결합, 칼슘 결핍 방지 등 칼슘대사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육계의 일령이 2~3주령 시에는 신장의 기능이 미숙하여 비타민 C 합성기능이 완전하지 못하고 칼슘대사나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도 약하다.

더군다나 전염성 기관지염이나 감보로병에 의한 신장의 병리변화와 뇨독증은 신장에서의 비타민 C의 합성기능을 더욱 감소시킨다.

통상 사용하는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이나 감

보로 백신도 신장에서의 비타민 C의 합성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입추 후 3주령동안 음수나 사료중에 비타민 C를 150mg/MT 정도 첨가하면 신장에서 비타민 C의 부적당한 합성에 의한 감소를 보충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비타민 D<sub>3</sub>의 적절한 공급을 이룰 수 있고 증체가 빠른 육계에서는 칼슘침착을 도와 다리문제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WP 94. 10)

#### □ 동물용 항생물질을 중국에서 생산

일본의 니찌멘사는 소, 돼지 등 동물용 치료제인 푸로카인 페니시린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중국에서 최대의 항생물질 제조회사인 화북제약창(하북성 석가장시)과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95. 10월부터 연간 300t 규모의 공장을 가동할 것이다.

이는 주요 조달원인 선진국의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니찌멘은 항생물질을 일본으로 수입하고 외국간 판매는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회사명은 화북화일약품 유한공사로 본사, 공장은 석가장시에 위치하고 자본금 310만불 중 니찌멘의 출자비율은 64.5%로서 공장건설자금을 상당한다. 중국측의 화북제약창은 공장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한다.

새로운 회사의 연간 판매 목표액은 1,100만 불로 합작회사로 설립하여 1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니찌멘사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측에 양도하는 조건이다. (AH. 94. 10)